

연자루(燕子樓) 이야기의 형성과 변주*

권 응 상**

〈目次〉

I. 들어가며	IV. 연자루 이야기의 변주
II. 연자루 이야기의 발단	V. 나가며
III. 연자루 이야기의 형성	

I. 들어가며

연자루는 강소성(江蘇省) 서주(徐州)에 있는 작은 누대이다. 이 누대의 역사는 당대(唐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누대는 당(唐) 정원(貞元) 연간에 무녕군절도사(武寧軍節度使) 장음(張愔)이 서주를 진수(鎭守)할 때, 그의 부제(府第)에 애첩 관반반(關盼盼)을 위해 특별히 지은 것인데, 매년 봄마다 제비가 이곳에 등지를 트므로 ‘연자루’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의 누대는 1985년 서주시(徐州市)가 증건한 것으로, 회랑으로 둘러싸인 이층 구조의 건축물이다.¹⁾ 그런데 이 단순한 건축물이 1,000여 년 넘게 수많은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1) 1,0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燕子樓는 누차 훼손되고 재건되었으며, 그 터도 몇 번의 변천을 거쳤다. 唐朝宗 景福 2년(893)에 朱全忠이 徐州를 공격했을 때 싸움에서 진 徐州의 行營兵馬都統 溥(彭城人)으로 武寧軍節度使를 역임했음이 처자와 함께 이 누대에 올라 스스로 분신하여 죽었고 누대도 불에 타버렸다. 이 후에 徐州 사람들이 關盼盼을 추모하여 여러 차례 燕子樓를 증건하였다. 明 萬曆 21년(1653)에는 燕子樓를 시의 서북쪽에 증건하였으며, 淸 光緒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건축물 이상의 문화 상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연자루에 얽혀 있는 이른바 ‘이야기’ 때문이니, 본고에서는 이 ‘연자루 이야기’의 발단과 형성과정, 그리고 발전과 변주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자루라는 건축물을 통해 연자루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걸려있는 편액이나 대련 등이다. 누대 안에는 백거이의 〈연자루(燕子樓)〉 시가 걸려 있으므로 연자루 이야기가 백거이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또 연자루에는 다음과 같은 몇 구의 영련(楹聯)이 있다.

화동(畫棟)은 오랫동안 잠겨있으니, 제비는 언제 돌아올지 물어본다. 그저 명사(名士)의 청삼(靑衫)과 미인의 황토(黃土)를 한탄하노라.

경루(瓊樓)를 새로 엮으니, 절세 미녀가 빛이 난다. 또 새삼 향산(香山)의 월단(月旦)과 파로(坡老)의 풍류를 보노라.²⁾

혈루(血淚)가 난전(鸞箋)에 뿌러지니, 일곱 글자 맑게 읊어 백부(白傅)에게 응수했네.

향훈(香魂)은 연막(燕幕)에 의지하여 천추에 남긴 흔적이 황루(黃樓)를 아우르네.³⁾

가운(歌韻)으로 풍류를 떨치며, 복야(僕射)의 다정함을 누렸으니, 청루(淸樓)에서 죽기는 어려웠다.

방심(芳心)으로 적막함을 한탄하다, 향산의 절창(絶唱)에 의지하여 갑자기 홍분(紅粉)을 천추에 곱게 물들이게 했네.⁴⁾

9년(1833)에는 徐州知府 曾廣照가 시의 서남쪽으로 옮겨 重建하였고, 光緒 15년(1819)에는 徐州 道段喆이 다시 서북쪽으로 옮겨지었다. 1914년에도 重修했는데, 1928년에 성의 담이 무너지면서 이 누대 또한 파손되었다. 1932년에는 또 서남쪽에 重建했는데, 일본군이 누대를 平房으로 개조하면서 다시 훼손되었고, 지금의 누대는 1985년에 증건한 것이다.

- 2) 胡佐卿題燕子樓：畫棟久銷沉，問何時燕子歸來，只空嗟名士靑衫，美人黃土；瓊樓新結構，爲絕代娥眉生色，又重睹香山月旦，坡老風流。
- 3) 司鐸高題燕子樓：血淚灑鸞箋，七字淸吟酬白傅；香魂依燕幕，千秋遺跡並黃樓。
- 4) 程與九題燕子樓：歌韻擅風流，縱射多情，難得淸樓拼一死；芳心嗟寂寞，賴香山絕唱，頓教紅粉艷千秋。

이상 첫 조의 ‘명사’는 백거이를 가리키며 ‘청삼’은 그의 시 〈비파행(琵琶行)〉에 나오는 “江州司馬青衫濕” 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어지는 ‘미인’은 관반반을 가리키며 ‘황토’는 관반반의 죽음을 비유한다고 하겠다. 다음 구의 ‘절세 미녀’도 관반반을 가리키며, ‘향산’은 백거이, ‘파로’는 소식(蘇軾)을 가리키는데, ‘월단’은 또 ‘월단평(月旦評)’이라고도 하며 인물에 대한 비평을 의미한다. 둘째 조의 ‘난전’은 여성의 시를 의미하고 ‘백부’는 역시 백거이를 가리킨다. 그리고 ‘황루’는 소식이 서주에서 벼슬을 할 때 황하(黃河)의 홍수를 다스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누대로서, 여기서는 소식이 연자루에서 반반의 꿈을 꾸고 읊은 그의 【영우락(永遇樂)】사에 나오는 일을 의미한다. 마지막 셋째 조의 ‘복야’는 반반의 남편이었던 장음을 말하며 ‘청루’는 기원(妓院)을 말한다.

이상 연자루에 있는 세 조의 영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은 백거이와 관반반이다. 그리고 이어서 소식과 장음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서 연자루 고사의 중심인물이 백거이와 관반반, 장음 등이며, 조대가 다른 소식도 이 이야기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자루 이야기에 관한 세인들의 초점은 백거이에 맞춰져 있다. 사실 관반반은 당대 기녀였고, 장음은 반반을 첩으로 받아들여 연자루에서 살게 한 인물일 뿐 그 명성은 백거이에 비길 바가 못 된다. 따라서 이야기의 출발은 백거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그의 〈연자루삼수(燕子樓三首)〉 서문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연자루 관련 연구들은 우선 백거이 시의 해석과 확장된 이야기의 진위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는 셈이다. 최근에야 연자루 이야기를 고찰한 몇 편의 글이 발표되었는데,⁵⁾ 나머지는 대부분 이야기와 관련된 시나 사람에 대한 진위 문제에 천착하고 있고, 그마저도 간단한 가십성의 글이 대부분이다.

5) 그것은 李春燕이라는 한 연구자에게서 나온 논문으로, 〈燕子樓故事的演變與思慕美人情結〉(《廈門教育學院學報》 第11卷 第2期, 2009.06), 〈報恩觀念影響下的燕子樓故事之演變〉(《語文學刊》 2010年 第12期), 〈燕子意象與燕子樓故事的文化意蘊〉(《天中學刊》 第27卷 第3期, 2012.06) 등이다.

필자의 관심은 이러한 진위문제에 있지 않다. 현존하는 문화 상징으로서의 연자루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전통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가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상대적으로 이야기 소재가 많지 않은 중국고전문학계에서 이야기를 발굴한다는 자료적 측면과 이 이야기가 소설과 희곡 같은 이야기 문학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변용되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 이야기 문학의 특징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자루 이야기의 발단

이야기의 발단이 된 백거이는 설명이 필요치 않은 당대의 대시인이다. 특히 백거이가 수많은 가기(家妓)를 거느렸을 뿐 아니라 기녀에 관한 많은 시와 일화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 그 발단의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다. 연자루의 주인인 관반반 역시 기녀이다. 관반반은 당대 팽성(彭城), 즉 지금의 서주 사람으로 대략 정원(貞元), 원화(元和) 연간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녀는 가무를 잘하고 악기 연주에도 능했으며, 시문도 잘 지은 재녀(才女)였다. 원래 양가녀(良家女)였지만 한미한 출신에 생활고까지 겹쳐 결국 악적(樂籍)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 후에 장음이 거금을 들여 그녀를 샀고, 다시 전문적인 훈련을 시킨 끝에 한 시대의 명가가 되었다. 그녀는 300수의 시를 지어 《연자루집(燕子樓集)》이라는 시집도 있다고 했는데,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그다지 신빙성이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그녀의 ‘주인’인 장음은 당대의 명신 장건봉(張建封)의 아들이었는데, 7년간이나 서주를 다스리면서 그곳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다. 그 때 장음은 관반반을 위해 연자루를 지어주고 함께 그곳에서 거했다고 한다.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백거이의 〈연자루삼수〉는 장중소(張仲素)의 〈연자루삼수〉에 대한 창화시(唱和詩)이다. 장중소는 장음의 아버지인 장건봉의 종형으로, 일찍이 장건봉의 수하에서 다년간 임직했다. 백거이는 〈연자

루삼수〉 앞에 다음과 같은 서문을 달았다.

서주의 고 장상서(張尚書)에게는 반반(盼盼)이라는 애기(愛妓)가 있었으니, 가무를 잘하여 고아한 자태와 풍치가 있었다. 내가 교서랑(校書郎)이 되었을 때 서주와 시수(泗水) 지역을 여행했다. 장상서가 나에게 연회를 배풀어주었는데, 술이 얼근히 오르자 반반을 나오게 하여 흥을 돋우게 했는데, 매우 즐거웠다. 내가 시를 주어 말하기를 ‘醉嬌勝不得，風裊牡丹花(취한 교태로 흐느적거리니 바람에 하늘거리는 모란꽃이로다.)’라고 했다. 이렇게 한 번 즐기고 가서는 이후에 다시 소문을 듣지 못하고 지금 12년이 되었다. 어제 사훈원외랑(司勳員外郎) 장중소(繪之)가 나를 찾아와서 새로운 시를 읊었는데, 〈연자루삼수〉로서, 사(詞)가 매우 완려(婉麗)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반반을 위해 지은 것이라고 했다. 회지(繪之)는 무녕군(武寧軍)을 여러 해 섬겨서 자못 반반의 시말을 알고 있었는데, “상서가 돌아가신 후 동쪽 낙양으로 장사지내고 돌아왔으며, 팽성에 장씨의 옛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에는 연자(燕子)라는 작은 누대가 있지요. 반반이 옛 사랑을 그리워하여 시집가지 않고 이 누대에서 10여 년간 혼자 쓸쓸히 살면서 지금도 그대로 있다요.”라고 했다. 나는 회지의 새 노래를 좋아하고 팽성에서의 옛 교유에 감응되어 그와 같은 제목으로 세 수의 절구를 지었다.⁶⁾

여기의 ‘장상서’는 바로 장음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장상서가 장건봉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근자에는 고증을 거쳐 거의 장음으로 정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백거이가 교서랑이었을 때는 정원 19년(803)에서 원화 원년(806)까지인데, 장건봉은 이미 정원 16년(800)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음은 일찍이 무녕군절도사, 검교공부상서(檢校工部尚書) 등을 역임

6) 白居易, 《白氏長慶集》卷15, 〈燕子樓三首·序〉: 徐州故張尚書有愛妓曰盼盼, 善歌舞, 雅多風態. 餘爲校書郎時, 遊徐、泗間, 張尚書宴餘, 酒酣, 出盼盼以佐歡, 歡甚. 餘因贈詩云: “醉嬌勝不得, 風裊牡丹花.” 一歡而去, 爾後絕不相聞, 迨茲僅一紀矣. 昨日, 司勳員外郎張仲素繪之訪餘, 因吟新詩, 有〈燕子樓〉三首, 詞甚婉麗, 詰其由, 爲盼盼而作也. 繪之從事武寧軍累年, 頗知盼盼始末, 云: “尚書既歿, 歸葬東洛, 而彭城有張氏舊第, 第中有小樓, 名燕子. 盼盼念舊愛而不嫁, 居是樓十餘年, 幽獨塊然, 於今尚在.” 餘愛繪之新詠, 感彭城舊遊, 因同其題, 作三絕句.

하고 마지막으로 또 병부상서(兵部尚書)를 맡았는데, 임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으니, 시서(詩序)와 부합된다 하겠다. 백거이는 정원 20년(804)에 교서랑을 맡고 있었고, 그 해 봄 장안에서 서주와 사수 등지를 여행할 때 무녕군절도사 장음의 연회에 초대되어 환대를 받았는데, 그 연석(宴席)에서 관반반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백거이는 이른바 “彭城舊遊”에 감응하여 창화시를 짓게 되었다는 것인데, 10년이 더 지난 일을 떠올려 창화시를 지을 정도로 관반반에 대한 인상이 매우 깊었던 것 같다. 이것은 당시 반반이 “佐歡”하여 “歡甚”했다는 표현과 그녀의 춤추는 자태를 형용한 것으로 보이는 “醉嬌勝不得, 風裊牡丹花”라는 표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이야기꾼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야기가 꾸며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품고 있다 할 것이다. Stephen Owen은 백거이가 이 연회석상에서 반반을 보고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추정한다. 그렇지만 넘볼 수 없는 남의 여자였으므로 그 당시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상이 지금 혼자 수절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욕망이 되살아나면서 그녀의 안부에 대해 궁금해졌고, 이에 그 욕망의 일부가 시로 표현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백거이의 창화시는 백거이의 욕망이 치환된 것이라고 하였다.⁷⁾ 어쨌든 백거이의 시서가 이러한 해석의 빌미를 준 것이다.

그렇다면 장중소의 원시와 백거이의 ‘욕망이 치환’되었다는 화시를 나란히 대조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첫째 조를 보자.

樓上殘燈伴曉霜,	누대 위의 희미한 등불 새벽 서리와 짝하고
獨眠人起合歡床。	홀로 잠자는 사람이 합환상(合歡床)에서 일어난다.
相思一夜情多少,	밤 내내 그리움의 정은 얼마나 컸는지
地角天涯未是長。	땅 모퉁이 하늘 끝도 길다 할 수 없다네.

7) Stephen Owen, 程章燦 譯, 《迷樓: 詩與欲望的迷宮(Mi-Lou: Poetry and the Labyrinth of Desire)》(三聯書店, 2003) 159-162쪽.

滿床明月滿簾霜,
被冷燈殘拂臥床。
燕子樓中霜月夜,
秋來只爲一人長。

침대 가득 밝은 달 주렴 가득 서리
이불은 차갑고 등불도 스러지는데 침상을 툄다.
연자루의 서리 내린 달밤이
가을 오니 이 한 사람만이 길게 느껴지네.

우선 장중소의 시는 반반의 입을 빌어 그녀의 입장에서 쓴 글이다. 첫 수는 반반이 견뎌온 불면의 밤을 묘사한 것이다. 첫 구의 “殘燈”, “曉霜”은 날이 밝아올 때 연자루 내외의 경색(景色)으로서, 연자루 안에는 등불이 스러져가고 밖엔 새벽 서리가 내려 있다는 것이다. ‘독면인(獨眠人)’은 반반의 지금 처지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서 이어지는 ‘합환상’과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뒤의 두 구는 반반의 그리움을 “地角天涯”와 대비하여 앞의 두 구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백거이 화시(和詩)의 앞 두 구 또한 반반의 새벽 기상 정경이다. 침상과 달빛, 주렴과 서리를 병렬하여 가을 새벽의 외롭고 쓸쓸함을 강조하고, ‘차가운 이불’과 ‘스러져가는 등불’ 아래에서 어렵게 몸을 일으켜 침상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쓸쓸함을 배가시키고 있다. ‘불침석(拂枕席)’이나 ‘시침석(侍枕席)’이라는 용어는 시첩(侍妾)을 대칭하는데, 반반의 “拂臥床”을 제시한 것은 그녀의 신분을 암시하며, 동시에 이제는 장음을 위한 ‘불상(拂床)’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뒤의 두 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묘사한 것이다. 임이 없는 차가운 가을밤은 어느 누구보다도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장중소의 시에서는 반반의 독백으로써 ‘지각천애’도 모두 자신의 이 정의 길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탄했는데, 화시에서는 곧 이 처량한 가을밤이 그녀 한 사람에게만 특히 느리게 느껴진다고 한탄하고 있으니, 같은 듯 다른 느낌이다.

北邙松柏鎖愁煙,
燕子樓中思悄然。
自埋劍履歌塵散,

북망산의 송백나무는 근심스러운 안개에 갇혀 있고
연자루 속에서 그리움 쓸쓸하다.
검리(劍履)가 묻힌 후부터 먼지를 일으킬 만큼 우렁
찼던 노래 소리도 흩어졌고

紅袖香銷已十年.

붉은 소매에 향기 사라진지 이미 십년이네.

鈿暈羅衫色似煙,
幾回欲著即潸然.
自從不舞霓裳曲,
疊在空箱十一年.

꽃 장식과 비단 적삼은 뿌영게 색이 바랬으니
몇 번이나 입고 싶었지만 눈물만 주르륵.
예상곡(霓裳曲)을 추지 않고서부터
빈 상자에 십일 년이나 포개져 있었네.

두 번째 시는 과거를 추억하며 현재 자신의 상태를 슬퍼하고 있다. 첫 구는 장음이 묻힌 북망산의 정경이다. 무덤가의 송백나무가 자욱한 안개에 가려 있듯이 연자루 안의 자신의 그리움도 끝이 없다. “思悄然”은 바로 그녀 마음속의 “鎖愁煙”과 같은 것이다. 뒤의 두 구는 임이 죽은 후부터의 현재 모습이다. 옛날 황제들이 대신들에게 총애와 신임을 표시할 때 특별히 칼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 전에 오르는 ‘검리상전(劍履上殿)’을 허락했다고 한다. 따라서 ‘검리’는 대신(大臣)의 대칭이 되었다. ‘가진(歌塵)’의 노래 소리나 ‘홍수(紅袖)’의 춤추는 자태가 사라진지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것은 임이 죽고 난 뒤로는 더 이상 가무할 마음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백거이의 화시 역시 같은 주제이다. 반반이 더 이상 가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색 바랜 ‘꽃 장식’과 ‘비단 적삼’을 통하여 강조하고 자신의 특기인 ‘예상곡’도 오랫동안 추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앞 시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已十年”이라 했는데, 장음이 원화 원년(806)에 죽었으므로 이 시는 원화 10년에 지어진 것이 된다. 백거이의 시에서는 또 “十一年”이라 했으니 “一十年”의 오기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원화 10년 가을 이전에 두 시인은 함께 장안에 있었으므로 이 시는 그 때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해 가을 백거이는 강주(江州)로 폄적되어 장안을 떠났으므로 이후에는 장중소와 창화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適看鴻雁洛陽回,
又睹玄禽遍社來.
瑤瑟玉簫無意緒,

마침 낙양에서 돌아오는 기러기를 보았는데
또 사일(社日)⁸⁾이 가까워오니 제비도 오는구나.
보석 비파와 옥피리에는 무심하게

任從蛛網任從灰。

제멋대로 거미줄 치고 먼지가 앉았네.

今春有客洛陽回，
曾到尚書墓上來。
見說白楊堪作柱，
爭教紅粉不成灰？

금년 봄 낙양에서 돌아온 나그네 있으니
일찍이 상서의 묘에 갔다 왔다네.
백양나무가 기둥감이 될 만큼 자랐다고 하는데
홍분(紅粉)도 먼지가 되지 않았겠는가?

앞 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감정을 묘사했는데, 첫 수의 시점이 가을이었는데, 이 시는 봄으로 바뀌었다. 기러기는 보통 가을에 북에서 남으로 오고, 제비는 봄에 남에서 북으로 간다. 그러나 장음이 묻힌 낙양과 연자루가 있는 서주는 각각 서쪽과 동쪽에 있어서 기러기가 낙양으로부터 온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은 소식을 전하는 기러기가 낙양에서 왔다고 믿고 있으며, 또 쌍쌍의 제비는 혼자된 외로움을 더욱 극명하게 해준다. 이 두 구는 오히려 첫 시의 더딘 시간과 달리 시간의 빠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두 구는 거미줄 치고 먼지 앉은 ‘보석 비파’와 ‘옥피리’를 통하여 자신의 신세도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백거이의 마지막 화시는 장중소가 알려준 그녀의 상황을 통하여 느낀 감회를 묘사하고 있다. 그 해 봄에 장중소는 낙양(洛陽)에서 돌아와 백거이와 만났고, 그가 일찍이 장음의 묘소에 가본 적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장음의 무덤가에 심어둔 백양나무가 기둥감이 될 만큼 자랐다는 것으로서 세월의 빠름을 강조하고, 여기에 빗대어 관반반도 이미 많이 늙었으리라고 추정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상 두 조의 시를 보면 제재와 주제가 같고, 시체가 같으며, 용운(用韻)도 동일 운부(韻部)이며, 압운한 각 글자의 선후 차례도 같으니, 화운(和韻)이면서 또 차운(次韻)이다. 창화시의 가장 핵심은 내용적 호응인데,

8) 春分 전후의 戊日로서 古代에 土神에게 제사지내며 풍성한 수확을 기원 드리는 날이다.

장중소의 ‘창(唱)’은 반반을 대신하여 그녀의 외롭고 쓸쓸한 생활과 감정을 서술한 것이고, 백거이의 ‘화(和)’는 반반의 이러한 생활과 감정에 대한 그의 동정과 세월의 무상함을 서술한 것이다.

이상의 시를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첫째 조는 ‘상사(相思)’의 정이 끝이 없다는 하소연에 특히 임이 없는 반반에게는 더 길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동조하고, 둘째 조는 가무를 하지 않고 홀로 지낸 1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기회욕착(幾回欲著)’이라는 표현으로 은근히 자신의 욕망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셋째 조는 시점을 가을에서 봄으로 옮겨놓고, ‘요슬옥소(瑤瑟玉簫)’로 대표되는 반반의 환락이 먼지 앉고 거미줄 쳤다는 한탄에 대해 세월이 너무 지나 미모와 자태가 없어졌을 것이라며 욕망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에 연정을 품었던 반반에 대해 동정하면서도 그 연정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 하의 백거이의 욕망이 보이는 시라 할 것이다.

이상 백거이의 시서를 비롯한 장중소와 백거이의 창화시가 연자루 이야기의 발단이다. 10년 전의 이름다웠던 관반반과 지금 독수공방 하는 관반반의 모습이 겹쳐지고, 거기에 백거이의 은근한 욕망이 얹히면서 호사가의 입맛을 자극하게 된 것이다.

Ⅲ. 연자루 이야기의 형성

이처럼 연자루 이야기는 처음에 당대 백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단지가 시만 있었으면 연자루는 ‘이야기’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백거이의 또 다른 시가 개입되면서 서서히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 그 시기는 송대이다. 송대 연자루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문헌은 필기 소설 형식의 《여정집(麗情集)》이다. 이 책은 송(宋) 진종(眞宗: 998~1022) 시기에 장군방(張君房)이 편찬한 것인데, 현재 실전되어 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설(類說)》과 《감주집(紺珠集)》에서 이 《여정집》을

인용하여 연자루 이야기를 수록하였고, 《녹창신화(綠窓新話)》에서도 《유설》과 거의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유설》 권29에 절록된 《여정집》의 〈연자루〉는 다음과 같다.

장건봉(僕射)이 무녕(武寧)을 맡고 있을 때 무기(舞妓) 반반을 연자루로 받아들였다. 백낙천이 벼슬길에 서주를 지나다가 더불어 시를 읊었는데, “醉嬌無氣力, 風嫋牡丹花.” 라고 했다. 공이 죽자 반반은 개가지 않겠다는 맹서를 했는데, 시로써 문답을 대신한 것이 많아서 시가 거의 삼백 편에 이르렀고 《연자루집》이라고 불렀다. 일찍이 세 수의 시를 지었으니, “樓上殘燈伴曉霜, 獨眠人起合歡床, 相思一夜情多少, 地角天涯不是長.”, “北邙松柏鎖愁煙, 燕子樓人思悄然, 自埋劍履歌塵散, 紅袖香消已十年.”, “適看鴻雁嶽陽回, 又睹玄禽逼社來, 瑤瑟玉簫無意緒, 任從蛛網任從灰.”라고 했다. 낙천이 화답하기를 “滿窗明月滿簾霜, 被冷燈殘伏臥床, 燕子樓中霜月夜, 秋來只爲一人長.”, “鈿暈羅衫色似煙, 幾回欲著即潸然, 自從不舞霓裳曲, 疊在空箱十一年.”, “今春有客洛陽回, 曾到尚書墓上來, 見說白楊堪作柱, 爭教紅粉不成灰.”라고 했다. 또 절구 한수에서 “黃金不惜買峨眉, 揀得如花四五枝, 歌舞教成心力盡, 一朝身去不相隨.”라고 했다. 반반이 울면서 “첩이 따라 죽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백년 후에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공이 색을 너무 밝힌다고 할까 두려웠나이다.”라고 하며, 이에 백거이의 시에 화답하기를 “自守空樓斂恨眉, 形同春後牡丹枝, 舍人不會人深意, 訝道泉台不去隨.”라고 했다.⁹⁾

9) 《麗情集》(《類說》 卷二十九) 〈燕子樓〉: 張建封僕射節制武寧, 舞妓盼盼, 公納之燕子樓, 白樂天使經徐, 與詩曰: “醉嬌無氣力, 風嫋牡丹花.” 公薨, 盼盼誓不他適, 多以詩代問答, 有詩近三百篇, 名《燕子樓集》. 嘗作三詩云: “樓上殘燈伴曉霜, 獨眠人起合歡床, 相思一夜情多少, 地角天涯不是長.” “北邙松柏鎖愁煙, 燕子樓人思悄然, 自埋劍履歌塵散, 紅袖香消已十年.” “適看鴻雁嶽陽回, 又睹玄禽逼社來, 瑤瑟玉簫無意緒, 任從蛛網任從灰.” 樂天和曰: “滿窗明月滿簾霜, 被冷燈殘伏臥床, 燕子樓中霜月夜, 秋來只爲一人長.” “鈿暈羅衫色似煙, 幾回欲著即潸然, 自從不舞霓裳曲, 疊在空箱十一年.” “今春有客洛陽回, 曾到尚書墓上來, 見說白楊堪作柱, 爭教紅粉不成灰.” 又一絕云: “黃金不惜買峨眉, 揀得如花四五枝, 歌舞教成心力盡, 一朝身去不相隨.” 盼盼泣曰: “妾非不能死, 恐百載之後, 人以我公重於色.” 乃和白詩曰: “自守空樓斂恨眉, 形同春後牡丹枝, 舍人不會人深意, 訝道泉台不去隨.”

이상의 기록에서 이제까지 가장 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앞서 인용한 장중소의 〈연자루삼수〉가 반반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백거이의 “又一絶”, 즉 〈감고장복야제기(感故張僕射諸妓)〉시가 반반에게 주는 증시로 설정되고, 반반의 해명과 답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 두 문제에 관한 진위는 여러 학자들의 고증으로 이미 허구임이 밝혀져 있으므로 더 이상 논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¹⁰⁾ 단지 주목할 것은 백거이의 시서에서 시작된 연자루 이야기가 《여정집》에서 상당히 내용을 가진 형태로 ‘형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기록에는 반반의 죽음이라는 결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정집》에 원래 이 내용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절록할 때 빼버린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백거이의 풍자시를 보고 울며 해명하는 부분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결말에 대한 단초는 들어있는 셈이다. 그래서 원래 결말 내용까지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검국(李劍國)은 《여정집》의 연자루 이야기가 송나라 사람이 개작한 것으로 결말 부분도 들어 있었을 것으로 보았고,¹¹⁾ 정의중(程毅中)도 이 기록이 구성이 치밀한 허구 소설이라고 규정하고 ‘불식이졸(不食而卒)’의 결말이나 임종 시의 유언구도 모두 《여정집》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¹²⁾ 이춘연(李春燕) 역시 북송 문인 진천(陳薦)의 “낙천의 재사(才思)는 봄비와 같으니, 남은 꽃

10) 이 기록의 영향으로 《全唐詩》에서조차 장중소의 원시가 관반반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錢鍾書는 《管錐編增訂》에서 백거이의 시서를 인용하여 “關盼盼의 《燕子樓》詩에서 關盼盼은 마땅히 張仲素가 되어야 한다.(關盼盼《燕子樓》詩, 關盼盼當做張仲素.)”라고 하고, 이에 대해 批注하기를 “이에 따라 고친다. 본래 《全唐詩》 婦女 부문에 근거하여 기록했는데, 그 뿌리를 아직 궁구하지 못했다.(遵改。本據《全唐詩》婦女門錄出, 未究其本也.)”라고 했다. 《全唐詩》가 이러하니 대부분의 문헌에서 이 시를 關盼盼의 것으로 보았는데, 《歷朝名媛詩詞》에서도 그녀의 작품으로 단정하고 “悲涼하고 黯淡하여, 글자마다 哀音이며 필력 또한 幽秀하여 대대로 전해지며 낭송될만하다(悲涼黯淡, 字字哀音, 筆亦幽秀, 宜其爲世傳誦也.)”고 평했다.

11) 李劍國, 《宋代志怪傳奇續錄》(南開大學出版社, 1997) 78쪽.

12) 程毅中, 《宋元小說研究》(江蘇古籍出版社, 1999) 55쪽.

마저 다 보내버려 하루 저녁에 지게 만들었네.”¹³⁾라는 시를 예로 들며 북송 때부터 백거이가 풍자시로 반반을 죽게 만든 이야기가 퍼져있었으므로 《여정집》에 이미 결말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

남송대 계유공(計有功)의 《당시기사(唐詩紀事)》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다. 이 책에는 백거이의 시서를 인용한다면서 “爲盼盼作也”라는 원구를 “乃盼盼所作也”로 고치고 또 “盼盼詩云”이라며 장중소의 〈연자루삼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백거이의 창화시 외에 “又贈之絕句”라며 〈감고장복야제기〉 시를 수록하고는 다음과 같이 잇고 있다.

……후에 중소가 나의 시를 반반에게 보여주자 반복해서 읽더니 울면서 “공이 돌아가신 후 첩이 따라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백년 후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공이 색을 밝혀서 따라 죽은 첩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한 것이니, 이것은 내가 공의 청렴함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그래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백거이에게 화시하기를 “自守空樓斂恨眉，形同春後牡丹枝，舍人不會人深意，訝道泉台不去隨。”라고 했다. 반반은 시를 본 후 슬피하면서 열흘간 밥을 먹지 않고 죽어버렸으니, 다만 “兒童不識沖天物，慢把青泥汗雪毫。”라고 시를 읊었다.¹⁵⁾

계유공은 이 글의 첫 문장을 “樂天有〈和燕子樓詩〉，其序云”으로 시작하고 글의 끝에 또 “出《長慶集》”이라는 주를 달아서 객관적인 서술처럼 적고 있다. 상기 문장은 이 글의 끝부분으로 바로 앞부분까지가 백거이의 서로 보이고, 이 인용문은 작자의 서술로 보인다. 작자의 서술로 보이는

13) 〈彭城八詠·燕子樓〉：樂天才思如春雨，斷送殘花一夕休。

14) 李春燕，〈燕子樓故事的演變與思慕美人情結〉(《廈門教育學院學報》第11卷 第2期，2009.6)。

15) 計有功，《唐詩紀事》卷78，〈張建封妓〉：……後仲素以予詩示盼盼，乃反復讀之，泣曰：“自公薨背，妾非不能死，恐百載之後，人以我公重色，有從死之妾，是玷我公清範也。所以偷生爾。”乃和白公詩云：“自守空樓斂恨眉，形同春後牡丹枝。舍人不會人深意，訝道泉台不去隨。”盼盼得詩後，怏怏旬日不食而卒，但吟詩云：“兒童不識沖天物，慢把青泥汗雪毫。”

글에서도 “予詩” 등과 같은 일인칭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따져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전체적으로 《여정집》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 두 문헌의 기록을 보면 연자루 이야기의 대체적 면모가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발단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전체적 골격은 백거이의 풍자시와 반반의 화답시, 그리고 죽으면서 남긴 유언구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백거이의 풍자시로 기록된 〈감고장복야제기〉는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권13에 수록되어 있는데, 장음이 죽은 지 오래지 않아 쓴 것으로 보인다. 내용으로 보아도 장음의 “諸妓”가 아직 흠어지지 않았을 때이고, 또 반반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를 끌어다 이야기의 결말 부분을 꾸민 것이다. 거기에다 반반의 화시까지 덧붙여 결말 부분을 완성하고 있다. 진위를 논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연자루 이야기의 결말은 또 이 백거이의 풍자시와 반반의 답시에 의해 구성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黃金不惜買蛾眉，
揀得如花四五枝。
歌舞教成心力盡，
一朝身去不相隨。

미인을 사는 데는 황금도 아끼지 않았으니,
꽃 같은 너 몇 명을 골랐네.
가무를 가르쳐 완성시키고는 기력이 다하여
하루아침에 죽으니 가기는 아무도 따라죽지 않았네.¹⁶⁾

自守空樓斂恨眉，
形同秋後牡丹枝。
舍人不會人深意，
訝道泉台不去隨。

홀로 빈 누대 지키노라니 한스런 눈썹 찌푸러지고
모습은 가을 지난 모란 가지 같구나.
사인(舍人: 백거이)은 사람의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고
천대(泉台: 반반)가 무덤까지 따라가지 않았다고 의심하며 말하네.¹⁷⁾

16) 〈感故張僕射諸妓〉.

17) 〈和白公詩〉.

반반은 이 시를 남기고 “怏怏旬日不食而卒” 했으니, 백거이는 자신의 잣대로 관반반을 예단한 비정한 시인이 되었고, 죽은 반반은 역대 시인들에게 두고두고 절개 있는 기녀로 칭송되었다. 또 그녀는 임종 직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구를 남겼다.

兒童不識沖天物, 어린아이가 충천물(沖天物: 학)을 몰라보고
漫把青泥汗雪毫 함부로 진흙으로 눈같이 흰 깃털을 더럽히네.

‘어린아이’는 백거이를 빗댄 것이고 ‘충천물’, 즉 학은 자신을 지칭한 것인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것으로 자신의 고결함을 더럽혔다는 원망인 것이다.

이처럼 연자루 이야기는 장중소와 백거이의 창화시에서 시작되어 백거이의 <감고장복야제기>시를 끌어오고 거기에 반반의 화시와 유언구를 꾸며 넣어 완성시킨 것이다. 그 형성 과정을 보면 관반반과 장음, 장음의 죽음과 연자루에서의 수절, 장중소와 백거이의 창화, 백거이의 풍자시와 반반의 답시, 반반의 죽음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를 갖고 있다. 반반의 수절에 대한 안타까움과 칭송에서 발단된 이야기가 백거이의 풍자시와 반반의 죽음으로 확장되면서 더욱 극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연자루 이야기가 이렇게 확장된 것은 또 후대 문인들의 관련 시사(詩詞)도 큰 몫을 했으니, 송대의 진천, 소식, 진관(秦觀), 모방(毛滂), 진사도(陳師道), 문천성(文天祥) 등을 비롯하여 원대의 살천석(薩天錫), 진부(陳孚), 유병(劉炳), 명대의 증계(曾棨), 호엄(胡儼), 설선(薛瑄), 하교신(何喬新), 서위(徐渭), 서유현(徐惟賢), 청대의 전겸익(錢謙益), 장언성(張彥聖), 전수박(錢守璞), 무의(武懿), 석패란(席佩蘭) 등도 시나 시를 남기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송대의 대문호 소식의 영향이 컸으니, 그는 【영우락(永遇樂)】사를 지었는데, 이 사의 서에서 “밤에 팽성의 연자루에서 자다가 반반의 꿈을 꾸었으니, 이에 이 사를 짓는다.”¹⁸⁾라고 하고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18) 【永遇樂】序：彭城夜宿燕子樓，夢盼盼，因作此詞。

明月如霜,
 好風如水,
 清景無限,
 曲港跳魚,
 圓荷瀉露,
 寂寞無人見。
 紉如三鼓,
 鏗然一葉,
 黯黯夢雲驚斷。
 夜茫茫,
 重尋無處,
 覺來小園行遍。

서리처럼 밝은 달
 물처럼 좋은 바람
 끝없이 펼쳐진 맑은 경치.
 굽이진 개울에는 물고기 뛰어오르고
 둥근 연잎에서는 이슬이 굴러 내리고
 적막하니 보이는 사람 하나 없다.
 삼경의 북소리 울리고
 툭 하고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데
 어둠 속에서 사랑의 꿈 놀라 깬다.
 밤은 아득하여
 다시 찾을 곳이 없는데
 깨어나서 작은 정원을 두루 서성인다.

天涯倦客,
 山中歸路,
 望斷故園心眼。
 燕子樓空,
 佳人何在?
 空鎖樓中燕。
 古今如夢,
 何曾夢覺,
 但有舊歡新怨。
 異時對, 黃樓夜景,
 爲餘浩嘆。

하늘 끝의 지친 나그네
 산 속의 돌아갈 길 바라보니
 옛 전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잊어버린다.
 연자루는 비어있으니
 가인은 어디에 있는가?
 빈 누대에는 그저 제비만 간헐있네.
 고금은 꿈과 같은데
 어찌 꿈을 깰거나.
 단지 옛 즐거움과 새로운 원한이 있으니.
 다른 날 내가 만든 황楼的 야경을 마주하며
 나를 위해 크게 한탄해 줄거나.

이 사는 송 신종 원풍(元豐) 원년(1078) 10월에 소식이 서주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소식은 회녕(熙寧) 4년(1071) 이래로 항주통판(杭州通判), 밀주지주(密州知州)를 거치고 막 서주로 왔다. 이 사는 연자루 이야기를 제재로 하여 소식 특유의 호방한 기풍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상편은 정원의 야경으로서 쓸쓸하고 외로운 가을밤에 잠을 깬다. 그리고 하편에서 좌천된 자신의 처지로부터 시작하여 고금의 역사를 반추하고 인생무상에

대한 심원한 생각을 펼쳐내고 있다. 이 사에는 연자루 이야기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고재사화(高齋詞話)》에는 “소유(少遊: 秦觀)가 공(公: 소식)의 최근 작품에 대해 묻자 이에 “燕子樓空, 佳人何在? 空鎖樓中燕.”이라는 구를 들었다. 조무구(晁無咎: 晁補之)가 ‘단지 세 구인데, 장건봉의 일을 다 말해 놓았군요.’라고 했다.”¹⁹⁾는 기록이 있다. 진관과 조보지 모두 소문사학사(蘇門四學士)에 속하는 당시의 대문호들이었고, 이들이 스승과 함께 ‘장건봉의 일’, 즉 연자루 이야기를 화제로 삼은 것이다. 이것에서 당시 문인들 사이에 연자루 이야기가 매우 보편화 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식의 이 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연자루 이야기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양자는 매우 상반된 방향이다. 하나는 연자루 이야기를 제재로 하여 이처럼 장중한 주제를 표현함으로써 연자루 이야기에 묻어 있는 이른바 ‘염정’의 색채를 덜어 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후세 문인들도 자연스럽게 이 제재를 ‘충절’의 예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실제 이후 연자루를 소재로 한 여러 시사 작품의 경향은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천상은 연자루를 지나면서 “아미(蛾眉: 미인)를 대신하기에 모자라지 않고 매몰되었어도 충분히 논할 만하구나. 어찌 장가(張家)의 첩이었기 때문에 명성이 산천과 함께 존재했겠는가? 자고로 모두 죽지만 충의는 항상 사라지지 않는 법. 단지 미인의 마음만 전하고 미인의 미색은 말하지 않는다네.”²⁰⁾라고 노래하여 반반을 빌어 자신의 충의를 드러냈다. 그리고 원대 살천석의 【목란화만(木蘭花慢)·팽성회고(彭城懷古)】 사에는 “다시 희마대(戲馬台)가 황폐해지고, 눈썹 그리는 사람 아득하며, 연자루는 비어 있구나.”²¹⁾ 인생은

19) 南宋 曾慥, 《高齋詞話》: 少遊問公近作, 乃舉“燕子樓空, 佳人何在? 空鎖樓中燕.” 晁無咎(補之)曰, “只三句, 便說盡張建封事.”

20) 〈用盼盼〉: 蛾眉代不乏, 埋沒安足論. 因何張家妾, 名與山川存? 自古皆有死, 忠義常不沒. 但傳美人心, 不說美人色.

21) ‘戲馬台’는 옛날에 項羽가 閱兵하던 곳이었으며, ‘畫眉人’은 漢나라 때 張敞이 아내에게 눈썹을 그려주었다는 ‘張敞畫眉’의 전고로서, 관반반이 장음의 첩이었으므로 같은 성씨의 전고를 사용하여 비유하고 있다.

백년 정도이니, 또 가슴을 열고 한번 마실 때 천 잔을 다 비우세.”²²⁾라고 하여 인생무상의 감회를 호방하게 노래하였다.

또 하나는 백거이의 시와 마찬가지로 소식의 이 사에서 후대 이야기의 확장과 변주의 빌미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Stephen Owen은 소식의 이 사에 대해 백거이의 화시처럼 ‘욕망’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 백거이는 결국 서주까지 못가고 시로써 욕망을 대체하고 있지만 260년 뒤의 소식은 반반이 살았던 바로 그곳에 자면서 꿈을 통하여 욕망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의 “夢雲”을 ‘몽정’으로 읽고, “圓荷”를 여자의 음경으로, “瀉露”를 정액의 방사로 해석하고 있다.²³⁾ 호운익(胡雲翼)도 “이사는 아마도 동파의 염몽작(艷夢作)인 듯하니, 《경세통언(警世通言)》 권 10의 <전사인제시연자루(錢舍人題詩燕子樓)>에서 드러난다 할 것이다.”²⁴⁾라고 하여 이 사가 후대 서사문학에 영향을 끼쳤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연자루 이야기는 송대에 이르러 문인들 사이에서 널리 유전되다가 《여정집》과 《당시기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야기’의 대체적 형태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당대 대시인 백거이에 의해 이야기가 촉발되었듯이 송대 대문호 소식의 【영우락】사의 중의성과 그 영향으로 인해 이야기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IV. 연자루 이야기의 변주

이러한 연자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발전된 시기는 명청대이다. 시화 관련서만 보아도 명대 종성(鍾惺)의 《명원시귀(名媛詩歸)》를

22) 元 薩天錫, 【木蘭花慢·彭城懷古】: 更戲馬台荒, 畫眉人遠, 燕子樓空. 人生百年寄耳, 且開懷, 一飲盡千鍾.

23) Stephen Owen, 程章燦 譯, 《迷樓: 詩與欲望的迷宮(Mi-Lou: Poetry and the Labyrinth of Desire)》(三聯書店, 2003) 163-166쪽.

24) 胡雲翼, 《宋詞選》(上海古籍出版社, 1999): 此詞蓋東坡有艷夢作, 《警世通言》卷十《錢舍人題詩燕子樓》可以相發.

비롯하여 《명원회시(名媛滙詩)》, 《고금여사(古今女史)》, 《고염악부(古艷樂府)》 등에 두루 등장하며, 청대에도 《전당시(全唐詩)》를 비롯하여 《역조명원시사(歷朝名媛詩詞)》, 《난규보록(蘭閨寶錄)》, 《청루시화(靑樓詩話)》 등에 실려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대부분 남송 《당시기사》의 기록들을 답습하고 있다. 필기소설류를 보면 원나라 왕운(王惲)의 이름으로 위탁한 《연자루전(燕子樓傳)》, 풍몽룡(馮夢龍)의 《정사(情史)》, 매정조(梅鼎祚)의 《청니연화기(靑泥蓮花記)》, 왕세정(王世貞)의 《염이편(艷異編)》, 장일규(蔣一葵)의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 낭영(朗瑛)의 《칠수류고(七修類稿)》 등에 모두 연자루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역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명대부터는 지방지에도 편입되었으니, 가정(嘉靖) 연간에 간행된 《서주지(徐州志)》와 만력(萬曆) 연간의 《서주지》, 《가경중수일통지(嘉慶重修一統志)》 등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동치(同治) 연간에 편찬된 《서주부지(徐州府志)》에는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고 처음으로 반반을 열녀전(烈女傳)에 넣기도 했다.

이야기의 발전과 변주라는 측면에서 보면 백화소설과 희곡이 두드러진다. 백화소설로 가장 먼저 언급할만한 것은 송대에 《취옹담록(醉翁談錄)》에 저록되어 있는 《연자루》 화본(話本)인데, ‘연분류(煙粉類)’에 제목만 들어있을 뿐 전해지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백화소설은 명대 풍몽룡의 《경세통언(警世通言)》 권10에 수록된 〈전사인제시연자루(錢舍人題詩燕子樓)〉이다.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기존 이야기 내용과 차이가 없지만 반반의 죽음 이후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다. 희곡을 보면 송원 희문(戲文)에 《허반반연자루(許盼盼燕子樓)》²⁵⁾가 있으며 원잡극(元雜劇) 중에는 《관반반춘풍연자루(關盼盼春風燕子樓)》가 있지만 모두 실전되었다. 명대에는 죽림일사(竹林逸士)의

25) 錢南揚이 輯錄한 《宋元戲文輯佚》에는 《許盼盼燕子樓》의 아홉 개의 唱曲이 남아 있다. 앞 여섯 곡이 하나의 투수로서 富豪 남성의 입을 빌어 元宵 盛宴의 호사와 환락을 노래하고 있고, 이어진 세 곡은 盼盼의 창으로 굳은 절개와 사랑의 기쁨을 노래했다.

《연자루》 전기(傳奇)가 있었고, 청대에는 섭혁포(葉奔苞)의 《연자루》 잡극²⁶⁾이 있는데, 역시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런데 청대 진량(陳煥)의 《연자루》 전기 16척(齣)에서는 또 윤희사상과 인과응보를 주제로 한 도탈극(度脫劇)의 성격으로 변주되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연자루 이야기의 유전과 발전 상황을 대별하면 기존의 이야기 구조를 답습한 것과 변주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내용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명대 《경세통언》의 <전사인제시연자루>와 청대 진량의 《연자루》 전기 등 두 종이 변주된 이야기에 속한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하여 이야기의 발전 상황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사인제시연자루>를 보면 전반부는 기존 이야기 구조를 답습하면서 당대의 사대부 문화와 반반의 미모와 재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기존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 반반이 누대에서 투신자살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시녀가 그 자살을 말리는 장면을 넣었는데, 말리는 이유가 투신자살은 몸이 땅가지므로 지하에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도움이 될게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원형대로 “不食而卒”로 결말을 짓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후반부의 변주를 위한 장치이다. 후반에는 죽은 반반이 ‘멀쩡한 몸’을 가진 귀신으로 등장하는데, 지하의 죽은 남편을 모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송나라의 중서사인(中書舍人) 전희백(錢希白)을 만나 이른바 ‘인귀련(人鬼戀: 사람과 귀신 사이의 연애)’이 시작된다. 소설에서는 이 전희백이 팽성으로 출진하여 연자루에서 노닐 때 백거이의 무정함을 비판하고 반반을 동정한다. 이에 감동한 귀신 반반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눈앞의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반한 전희백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치근거린다. 귀신 반반은 시로써 자신이 바로 연자루에 살았던 반반임을 알리고 전희백은 비로소 욕망을 제어한다. 마음을 다잡고 있는 전희백에게 귀신 반반은 노래를 부르며 다시 자극하고 이에 다시 뒤쫓아 가자 귀신 반반은 홀

26) 이 작품은 《經鋤堂樂府》에 저록되어 있는데, 지금 康熙刻本이 華東師大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연히 사라진다. 그리고 전희백이 후에 “어느 날 저녁 병 없이 죽었다(一夕無病而終)”는 결말로서 다른 세계에 가서 반반과 재회할 것임을 암시하면서 소설을 끝맺고 있다.

이러한 변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취옹담록》에 ‘연분류’ 화본으로 기록되어 있는 《연자루전》을 기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 화본은 현재 실전되었지만 손해제(孫楷第), 담정벽(譚正璧), 호사영(胡士瑩) 등의 고증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반반의 소위 ‘인귀련고사(人鬼戀故事)’를 다른 작품으로 보고 있다.²⁷⁾ 또 일실된 원잡극 《관반반춘풍연자루》나 희문 《허반반연자루》도 ‘인귀련’을 다른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사인제시연자루〉의 변주는 갑자기 창작된 것이 아니라 송 화본과 원잡극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주 속에서도 반반은 끝까지 수절의 이미지를 놓지 않는다. 소설의 결말에서 사랑의 밀고 당김은 현실적인 욕망을 드러낸 것이지만 결국 그 한계를 넘지는 않는 것이다. 장상서가 죽은 뒤 반반은 “첩은 여자여서 상서의 은덕을 보답할 길이 달리 없으므로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어 불경을 낭송하면서 공의 명복을 빌면서 이 한 세상을 다 하고 재가하지 않을 것을 맹서하나이다.”²⁸⁾라고 한다. 후에 전희백도 연자루에서 그녀의 자취를 발견하고는 “애석하게도 반반은 본래 창기로서 기꺼이 죽음으로써 건봉의 큰 은혜에 보답을 했으니, 비록 열혈 장부라도 어찌 이렇게 하겠는가. ……실로 가련하구나. 10여 년을 수절했는데, 깨끗한 마음이 묻혀 전해지지 못했으니.”²⁹⁾라고 하여 그녀의 정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귀신으로 등장한 반반에게 전희백이 계속 구애하며 집적거리지만 귀신 반반조차도 “다행히 그대가 난잡함에 이르지 않는아서

27) 陳桂聲, 《話本敘錄》(珠海出版社, 2001) 55-58쪽.

28) 《警世通言》卷10, 〈錢舍人題詩燕子樓〉: 妾婦人, 無他計報尚書恩德, 請落髮爲尼, 誦佛經資公冥福, 盡此一世, 誓不再嫁.

29) 《警世通言》卷10, 〈錢舍人題詩燕子樓〉: 但惜盼盼本一娼妓, 而能甘心就死, 報建封厚遇之恩, 雖烈丈夫何以加此. ……實憐守節十餘年, 自潔之心, 混沒不傳.

깨끗한 정조를 보전할 수 있었나이다.”³⁰⁾라며 정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그야말로 “가인은 의를 중시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았으니, 깊은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죽었다네.”³¹⁾라는 주제로 요약된다 하겠다.

풍몽룡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정사》에서도 드러나니, 그는 이 이야기를 ‘정정류(情貞類)’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것은 흔히 백화소설에서 기대되는 결말과는 다른 것이다. 귀신으로 등장한 주인공과의 사랑을 기대하던 독자의 입장에서는 싱거운 결말이며, 이것이 또 이 소설이 가진 한계라 할 것이다. 이것은 명대라는 시대 분위기에 기인한 결말로 보는 견해가 많다. 명대 예교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사이의 사랑이 목숨과 맞바꾼 명성을 흠집 낼까 두려워한 것이다. 이춘연은 이것을 명대 통치계층의 정절관념 선양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歷代節婦烈女の統計》에 따라 송 이전의 ‘절부열녀’는 187명에 불과하지만 명대에 갑자기 35,829명으로 늘었음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³²⁾

진랑의 《연자루》전기는 더욱 큰 변주를 보여준다. 이 극은 중국고전 희곡에 자주 등장하는 도탈극의 전형적 형태로서 인간세계에 내려온 신이 갖은 역경을 겪다가 다시 승천하는 이야기 구조이다. 제2척 〈몽인(夢因)〉은 규방의 반반이 한가롭게 봄날 그리움에 빠져있을 때 화신(花神)이 속세를 그리워하는 암시가 나타난다. 이어서 〈사연(賜宴)〉, 〈상춘(賞春)〉, 〈완월(玩月)〉 등에서는 반반이 총애를 받으며 가무하던 시절을 두루 표현하고, 〈성운(星殞)〉, 〈서가(誓嫁)〉, 〈기시(寄詩)〉 등에서는 반반의 외로운 수절생활을 묘사했는데, 2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과 갖은 고난 끝에 결국 〈누순(樓殉)〉에서 단식하고 죽어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반반이 죽을 때 화신이 출현하여 ‘접인(接引)’하고 이제까지의 반반의 처경은 화신의 고난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마지막 〈연향(戀香)〉과 〈감구(感舊)〉에서는 관반반의 죽음에 대해 비통해하며 황제에게 정절문을 세워줄 것을 상소한다.

30) 《警世通言》卷10, 〈錢舍人題詩燕子樓〉: 幸君無及於亂, 以全貞潔之心.

31) 《警世通言》卷10, 〈錢舍人題詩燕子樓〉: 佳人重義不顧生, 感激深恩甘一死.

32) 李春燕, 〈報恩觀念影響下的燕子樓故事之演變〉(《語文學刊》 201年 第12期).

이러한 구조 속에 반반의 죽음을 도덕적인 완성으로 미화하기 위해 소위 ‘호충(胡忠)의 자살’³³⁾ 이야기를 첨가하는 변주가 들어있다. 반반은 장건봉이 임종할 때 이미 자신도 자살할 결심을 한다. 그녀는 장건봉의 은덕에 보답하고 또 죽은 친구를 추념하는 백거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충신 장건봉을 죽이지 못한다는 정의와 은혜를 베푼 이희렬(李希烈)을 배신할 수 없다는 보은 사이에서 결국 자살을 택하는 호충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 장건봉과 백거이의 입을 통하여 두 사람의 ‘사절(死節)’을 찬양하고 아울러 황제에게 널리 선양해줄 것을 상소하는 것으로 죽음의 미화는 완성된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변주는 화신 소화옥녀(掃花玉女)의 등장이다. 반반의 자살이 사실은 20년 전의 인과에 의한 응보라는 것으로, 그것은 소화옥녀가 우연히 맺은 ‘정연(情緣)’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옥청전(玉淸殿) 앞에서 장화사자(掌花使者)가 선계(仙界)로 다시 돌아가는 귀신 반반을 인도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것은 이른바 윤회설과 인연설이 결합되어 반반의 영육과 보은, 수절 등 모든 것이 하늘에서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는 숙명론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반반의 형상은 결국 화신의 속세에서의 귀양살이로 대체된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보은수절(報恩守節)의 내용은 도교의 환상과 불교의 색공관이 융합되어 있으며, 또 유가의 충정(忠貞) 사상이 어우러져 있다.

이처럼 연자루 이야기는 명청대에 이르러 사후세계로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인귀련’의 형식과 불교와 도교가 융합된 ‘도탈’ 사상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이다.

33) 胡忠은 원래 무술을 지도하는 江湖教師였는데, 후에 命案을 범하여 淮西로 도망쳐 節度使 李希烈의 수하에 들어간다. 호충이 평소 역모를 꿈꾸는 이희열에게 들어가자 張建封이 그를 처단하러 가고 호충은 차마 장건봉이라는 충신을 죽이지도 못하고 또 목숨을 구해주고 중용해준 이희열의 은혜를 갚을 방법도 없어서 결국 스스로 자결하고, 장건봉은 그의 이런 자살을 칭송한다.

V. 나가며

이상으로 연자루 이야기의 발생과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자루 이야기는 당대의 작은 에피소드가 1,00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입에 회자되면서 좁게는 중국 서주 지역의 문화 상징으로서, 넓게는 중국 고전 이야기의 생명력을 징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연자루 이야기의 힘으로서, 시대와 양식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현재까지 그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연자루 이야기는 관반반이라는 기녀에 대한 백거이의 감회로부터 발단 되어 송대 각종 문헌에 오르내리고 수많은 문인들의 문학 제재가 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대문호 소식의 【영우락】시는 반반의 이미지 형성과 이야기 전파에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명청대 이야기 변주의 단초가 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연자루 이야기는 당송대를 대표하는 대문호 백거이와 소식의 이름값이 이야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 배경에는 또 당송 가가문화(家妓文化)의 영향도 크다. 당송대는 사대부 문화가 극성하였고, 기녀는 그 중심에서 사대부 문인들의 친구이자 동업자로서 문화계를 이끌었던 존재들이다. 백거이와 소식은 이러한 기녀들에게서 절대적 인기를 누렸고 또 수많은 가가들을 거느리기도 한 당송 기녀문화의 선구자들이었다. 관반반이라는 가가의 수절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대부 문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소재였는데, 여기에 선망의 대상이었던 백거이와 소식이 관련된 이야기였으니, 이 이야기는 급속도로 전파되고 확장되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명청대의 소설과 희곡에서 더욱 발전되고 변주된다. 시간적 배경이 사후로 확대되고, 공간이 천상과 지하를 넘나들며, 인물도 인간에서 신으로 확장된다. 이야기의 발전과 변주에 따라 반반의 모습도 다양하게 형상화 되었다. 백거이에게서는 가무를 잘 하는 아름다운 미녀였는데, 소설가의 눈에 들어간 후로는 또 시도 잘 짓는 ‘재녀’가 되었다. 당송대에

는 수절한 가에서 충의보국(忠義報國)을 비유하는 충신의 대체 형상으로, 그리고 명청대에는 정절기녀(貞節妓女)에서 전통적 부덕(婦德)을 대표하는 열녀(烈女)로 변이되었다.

이처럼 연자루 이야기는 시대와 양식에 따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야기 구조가 가지는 단순함에 다양한 양식의 다양한 작품으로 변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것은 이야기 자체의 내용과 구성보다는 이야기 형성 과정에 개재되어 있는 백거이와 소식이라는 대문호의 이름이 이야기의 생명을 이어주는 큰 힘이었기 때문이었다. 역설적으로 그 힘이 또 이 이야기의 한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 References >

- Bai Juyi, *Bai Juyi ji*(白居易集),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88.
- Peng Dingqiu etc, *The whole Tang poetry*(全唐詩),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99.
- The Ancient Literature Research Institute of Peking University, *The whole Song poetry*(全宋詩),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91.
- Tang Guizhang, *The whole Song Ci poetry*(全宋詞),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99.
- Tang Guizhang, *The whole Jin Yuan Ci poetry*(全金元詞),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79.
- Sui Shushen, *The whole Jin Yuan Sanqu poetry*(全元散曲),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81.
- Zhou Guangpei, *Some literary sketches of history*(歷代筆記小說集成), Hubei: Hebei Education Publishing House, 1995.
- Zhuang Yifu, *A Study of Chinese Classic Drama Anthologies Published*

- (*古典戲曲存目彙考*), Shanghai: Shanghai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1982.
- Mei Dingzuo, *Qingnilianhuaaji*(*青泥蓮花記*), Hefei: Huangshan publishing house, 1998.
- Ji Yougong, *A Chronicle of Tang Poetry*(*唐詩紀事*), Shanghai: Shanghai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1987.
- Feng Menglong, *Stories to Awaken Men*(*警世通言*), Beijing: Renminwenxue publishing house, 1991.
- Feng Menglong, *A History of Love*(*情史*), Changsha: Yuelu publishing house, 2003.
- Hu Yunyi, *A selected works of Song Ci Poetry*(*宋詞選*), Shanghai: Shanghai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1999.
- Qian Zhongshu, *A revise and enlarge of Guanzhuibian*(*管錐編增訂*),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82.
- Li Jianguo, *A sequel to The apparition legendry continued of Song Dynasty*(*宋代志怪傳奇續錄*), Tianjin: Nankai University press, 1997.
- Cheng Yizhong, *A Study on the Novels of Song and Yuan Dynasty*(*宋元小說研究*), Nanjing: Jiangsu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1999.
- Qian Nanyang, *A Compilation of Xiwen in Song and Yuan Dynasty*(*宋元戲文輯佚*),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2009.
- Chen Guisheng, *Records of Huaben*(*話本敘錄*), Zhuhai: Zhuhai publishing house, 2001.
- Stephen Owen, translated by Cheng Zhangcan, *Mi-Lou: Poetry and the Labyrinth of Desire*, Hongkong: SDX Joint Publishing Company, 2003.
- LI Chun-yan, "Studies on the Evolution of Swallow Pavilion Story and

- admire the Beauty complex(燕子樓故事的演变与思慕美人情结)”, *Journal of Xiamen Educational College* 11.2 (2009.06): 12-17.
- LI Chun-yan, “Studies on the Evolution of Swallow Pavilion Story in effects of Gratitude ideas(報恩觀念影響下的燕子樓故事之演變)”,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12 (2010): 69-70, 76.
- LI Chun-yan, “Studies on the Cultural Implication of Swallow Pavilion Story and the Swallow Image(燕子意象與燕子樓故事的文化意蘊)”, *Journal of Tianzhong* 27.3 (Jun. 2012): 28-31
- Hu Ying, “Studies on the Original Story of GuanPanpanchunfengYanzi lou(元佚雜劇《關盼盼春風燕子樓》本事考)”, *Journal of Lanzhou* 6 (2002): 96-97.
- 山民, “Three Problems about Swallow Pavilion in Xuzhou 徐州燕子樓三題”, *Journal of Xuzhou Education College* Vo1. 15, No. 2(Jun. 2000): 105-107.
- Fubenyayi, translated by LI Yinsheng, “The Swallow Building and Master Zhang(燕子樓與張尚書)”, *Journal of Hechi University* 27.6 (Dec. 2007): 15-22.
- Xu Chongyu, “Swallow Pavilion Story and Guan Panpan(燕子樓與關盼盼)”, *Knowledge*, 6 (2002): 1-2.
- Du Guiping, “The Historical Issues about Ye Yibao's Jingzhutangyuegu (葉奕苞《經鋤堂樂府》相關史實考)”, *Literary Heritage* 3 (2008): 113-118

<Abstracts>

The story of Swallow Pavilion was originated from Bai Juyi(白居易)'s reminiscence of Guan Panpan(關盼盼). Being a very popular subject in

the Song(宋) Dynasty, it became a full story by scholars of the time. Especially, 【Yongyule(永遇樂)】 Ci(詞) of Sushi(蘇軾) not only dedicated to the formation of Guan Panpan and the propagation of the story, but also made a major impact on becoming clue of the story' alteration during the Ming(明) and Qing(清) Dynasty. Novels and dramas in the Ming and Qing Dynasty developed the story; Time of the story expands to afterlife, the place expands to celestial and underground, and the character expands to the gods from human. As the story develops and changes, so did the image of Guan Panpan. Figure of a sage, loyalty and a virtuous woman was added to the original image.

Key Words : 燕子樓 이야기(Swallow Pavilion Story), 關盼盼(Guan Panpan), 白居易(Bai Juyi), 蘇軾(Su shi), 형성(Formation), 변주(Mutation)